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정민하 울리오 신부 주소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02)921-5093  
FAX 02)921-7847 E-Mail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머리글

정민하 울리오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 “뜨거운 여름, 식혀 주시는 하느님의 자비”

무더위가 깊어질수록 몸과 마음이 지치기 마련입니다. 특히 교정시설의 제한된 공간과 단조로운 일상에 머무는 분들에게 여름은 더욱 견디기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면 왠지 그분의 자비가 지친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식혀 주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교정사목의 현장도 이 무더위처럼 때로는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더위 안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과 서로를 바라보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수용자 한 사람, 그리고 소중한 봉사자분들, 교정사목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 모두는 하느님의 귀한 자녀이며, 하느님 자비의 여정에 동반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정시설 안에서 더운 날씨와 외로움, 죄책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비와 사랑이 담긴 위로와 희망의 불빛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갈등과 역경 속에서 사람과 세상을 치유하는 힘이자 언제나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정화하는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따뜻한 한마디 말, 손글씨로 전한 편지 한 장, 봉사자들과 후원회원들의 기도와 나눔이 모여 수감자들에게 주님의 참된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8월에는 성모님께서 지상 생활의 여정을 마치고 하늘의 영광으로 올림을 받으신 성모 승천 대축일을 지냅니다. 성모님께서 항상 세상과 우리 죄인들을 위해 하느님께 전구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성모님은 변호자, 원조자, 협조자, 중개자라는 칭호로 불리십니다.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62항) 이러한 성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운 일들과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정사목 형제자매 여러분, 올여름이 아무리 덥고 지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시원한 자비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 안에 머무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주님의 사랑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늘 기도와 정성으로 교정사목을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 안에 충만히 머무시길 기도드립니다.

한국가톨릭교정사목전국협의회 성심회(천주교 신자 교도관) 대의원회의



6월 28일(토) 대전 거룩한말씀의회 수녀원에서 한국가톨릭교정사목전국협의회 성심회(천주교 신자 교도관) 대의원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전국 성심회 총회장 및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용자들을 위해 몸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도관들의 신앙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교도관이 되기를 힘쓰시는 분들을 위해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각 교정시설 흑서기 지원



각 교정시설(성인, 청소년)에 여름철 무더위를 이겨내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특별 간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서울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모든 수용자에게 얼음물과 생수를 지원하였고, 고봉중고등학교와 분류심사원 청소년들에게는 7, 8월 매주 1회(총 9회) 아이스크림을 지원하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무더위에 지쳤을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7월 7일(월) 가톨릭회관 3층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가 최남식 베드로 신부(살레시오회)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최남식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의 힘은 사람들을 변하게 하고 하느님께 이끌어내는 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만델라 소년학교에서 6명이 세례를 받았고, 소년원에서 2명, 제가 살고 있는 시설에서 8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라며,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께 닿아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느님께 맡기며 주님의 은총을 청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이 미사에서 최남식 베드로(6월 29일) 신부와 이승민 대건안드레아(7월 5일) 신부 축일 축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봉사자들과 후원회원들은 기쁜 마음으로 축일 특송을 함께 노래하였습니다. 수용자와 출소자,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곧 빛이 될 사람들

이종실 아가페 / 서울남부교도소 공장 봉사자

서울남부교도소 공장에서 매주 화요일은 미사, 넷째 주 수요일은 자매 상담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넷째 주 수요일 자매 상담 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으며, 늦지 않게 2시간 전에 출발하여 조금 일찍 도착해 준비합니다. 형제들을 만나기 전 기도를 하며, 지금은 정말 천사와도 같은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수용자를 위한 기도 중 “그들의 고통은 그들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각박하고 차가운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오니” 그 부분은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들과는 다름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의 권유로 이영우 신부님께서 위원장이실 때 봉사자 교육을 받고 서울남부교도소 훈련원에서 봉사를 시작했고, 몇 년의 공백기 동안에는 신앙교육원을 다니면서 모자란 봉사자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다시 지금의 공장에서 봉사를 시작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처음 교도소의 철문들을 통과할 땐 어색하고 이질감이 심했지만, 이제 철문도 형제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러워지고, 하느님의 자녀임을 느낍니다.

출소한 형제님들도 생각이 납니다. 명동 가톨릭회관 월례 미사 때 가끔 출소한 형제들을 만나면 매우 반갑습니다. 아직도 많은 날을 이곳에서 보내야 하는 형제들은 성당이나 이웃에서 보는 형제, 자매들보다 더 예수님을 가까이하며 절실히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고 있는 듯합니다. 복음 나누기를 할 때면 공책에 가득 써온 글은 감동을 주고, 어떤 형제님은 영성체 때 예수님 체험을 나누고, 표현하고 싶어 애쓰는 모습은 감동을 넘어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곳 형제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왔던지 바깥 교회와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인내와 작은 일에서도 기쁨과 희망을 얻고, 억압 속에서도 새로운 방식의 사랑을 키울 수 있게 당신만의 방식으로 단련시키고 있으십니다.

어제 복음 말씀처럼 내 눈 속의 들보는 못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뽑아주겠다고 하는 제가 아니기를 바라는 겸손한 마음에서 봉사해야겠습니다. 미약한 봉사자인 저와 함께 복음을 나누며 잠시라도 행복할 수 있고, 출소해서도 이곳에서 간절히 느끼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 교정시설 자매 상담 : 형제님들과 2주에 한 번씩 모여, 복음 나누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 2025년 제26회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 안내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마태 25,36)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는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을 통해 수용자와 출소자들과 같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교정사목 봉사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일정 : 2025년 9월 4일(목)~11월 13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
- 장소 :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센터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 교육비 : 10만원 / 우리은행 1005-903-307477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 신청 : 2025년 8월 29일(금)까지 (☎ 02-921-5093 / 010-3732-5093)
- 교육일정

- 1) 온라인 교육 : 회기당 15~30분 내외 (교육 기간 중 시청 가능)
- 2) 영상 프로그램 : 네이버 밴드

회기	날짜	강의내용	강사	소속
1	9월 4일 ~ 11월 13일	교정 봉사의 의의와 봉사자 격려	Bp.유경춘	사회사목담당교구장대리
2		청소년 교정시설 소개	Fr.유상철 /최불암	살레시오회/배우
3		빈곤과 범죄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4		역울한 옥살이를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윤성여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누명
5		교정봉사 / 사형수 / 사형제도 폐지	공지영	작가
6		출소 후 삶의 방향	강OO	출소자 형제

3) 심화 교육 : 2025년 9월 4일(목)~11월 13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 /  
교정사목센터 2층 배움터

회기	날짜	강의 내용	강사	소속
1	9/4(목)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소개 교정시설의 이해	Fr.정민하 강군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前)서울남부교도소장
2	9/11(목)	수용자, 수용자 가족, 범죄 피해자와의 상담심리를 통해 본 그들의 이해	Sr.최인형	노틀담수녀회
3	9/18(목)	가톨릭 교육에서 바라보는 수용자와 위기청소년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엄기홍	더폼다 교육공동체
4	9/25(목)	범죄와 교정, 사형제도	이백철	前) 경기대 교수
5	10/2(목)	고봉중고등학교 / 소년분류심사원	Fr.최남식	살레시오회
6	10/16(목)	누명과 재심	장동익 박준영	출소자 형제 인권변호사
7	10/23(목)	범죄와 인권	Fr.송정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8	10/30(목)	범죄와 자립, 상담기법	김성일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장
9	11/6(목)	시설 참관 (서울구치소)		
10	11/13(목)	현장 활동 사례 파견 미사	대표 봉사자 Fr.정민하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 상기 프로그램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믿고, 일어설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기쁨과희망은행

민00 / 기쁨과희망은행 창업대출자

기쁨과희망은행 창업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마련하게 된 민00입니다.

기존에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일인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레저용 이륜차 사업을 선택하였습니다. 바이크를 타는 라이더의 수도 늘어나고 개개인의 바이크를 전담하여 관리, 수리를 하는 사업시장의 크기도 커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동계 시즌, 장마 시즌 같은 바이크를 타지 못하는 계절적인 요인이 단점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수리센터가 아닌, 동호회원 등 회원제도와 비슷한 의미로 업자와 개인의 관계가 아닌, 같은 바이크를 타면서 만나는 하나의 모임 같은 개념으로 공유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알고 지내던 바이크 동호회원들과 관계를 재정비하고 있으며, 일반 라이더(초보 & 일반적인)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운영 능력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동호회나 밴드에서 리더 또는 관리자 위치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금 마련은 친한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기쁨과희망은행 창업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리더십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을 믿고 따라주는 주변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짓이 없고, 같이 고민하고 좋은 정보는 공유하는 성격이 장점이고, 비범이라 생각합니다. 바이크를 다루는 것도 일반적인 라이더보다 뛰어나 저를 믿고 따르는 동호회원들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반을 잡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오해를 푸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고, 저의 상황을 증명하고 오해를 풀었습니다. 점점 업체에 방문해 주는 회원 수가 늘어났고, 바이크에 대한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확정은 없습니다. 단지, 제 시간을 얼마만큼 투자하느냐에 따라 찾아주는 회원 수가 늘어나고, 회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자산으로 연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영업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이크의 안전성은 생명과 연관성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처음부터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생각보다는 본인이 가장 잘하거나 잘 알고 있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으로 창업했으면 합니다.

범죄자라는 수식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믿고, 일어설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기쁨과희망은행에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인사부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신부님...

어머니께 전해지는 작은 지원이 지금 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하고 절실한 손길입니다. 마음만 앞서 두서없는 표현일지라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약 20개월 간의 마이너스 경영 악화로 지인 및 각 금융사의 자금(대출금,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고, 책임자였던 저는 결국 교도소라는 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업체를 운영하다 보니 피해자도 많았고, 여러 재판으로 나뉘어 10년이 넘는 형기를 처분받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4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고, 그동안 저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수십, 수백 번을 생각하고 반성도 해가며 그 원인을 찾았고, 지금 저는 사회복귀의 도전을 위해 제 단점을 고쳐나가며, 공부도 하고 천주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신부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신부님, 제가 이곳에서 지내다 보니 10만 원이 1,000만 원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께 전해지는 지원금이 현재 저에게는 수천, 수억 원의 단위 체감이고 그보다 '천주교'의 개인적인 생각과 신뢰, 감사함이 정말 큼니다.

동부구치소의 정OO 교도관님으로부터 제 고마움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회에 나가고자 취사장에서 운영지원을 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처음 교도관님을 뵈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에 대한 지원도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약 2년 후쯤, 정OO 교도관님이 제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셨습니다.

“OO씨,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감사해야해요. 그리고 나중에 꼭 찾아가서 인사드리세요.”

신부님, 정말 감사합니다.

신부님께서 잡아주신 따뜻한 손길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고이 간직하고 두고두고 기억하겠습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종교가 없었습니다. 가끔 지방에 가면, 산세 좋은 절에 들려 기도하고 내려오는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저 스스로가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각 종교의 집회에 참여한 취사원들과 나눈 이야기로 기부나 지원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보다 천주교의 지원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고, 그 믿음이 무척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마다 미사를 위해 성당에 모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제가 의지할 곳이 여기인가 싶습니다.

어머니께는 신부님이 잡아주신 그 손이 생명줄입니다.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신부님에 대한 믿음, 천주교에 대한 믿음, 이젠 제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신부님. 은혜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챙기시고 아프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 07. 09. 1100

※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생활하며 수용자 가족 지원을 받고, 현재 다른 지역 교정시설로 이송되어 생활하고 있는 형제님이 보내는 감사 편지입니다. 형제님에게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9월 월례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2025년 9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2025년 제26회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의 교정교화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교육을 시행합니다.

■ 일시: 2025년 9월 4일(목)~11월 13일(목) ■ 장소: 교정사목 센터 ■ 교육비: 10만원

※ 자세한 사항은 소식지 6~7면을 참고해 주세요.

#### ● 행사알림

- 8월 4일(월)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미사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8월 4일(월), 6일(수)~7일(목), 11일(월) 서울남부구치소 여사 인성교육
- 8월 5일(화)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여름 특강 교육
- 8월 5일(화)~7일(목)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여주교도소 여사
- 8월 6일(수)~8일(금) 고봉중고등학교 여름신앙학교
- 8월 20일(수)~22일(금) 한국가톨릭교정사목전국협의회 총회 및 사제, 수도자 연수
- 8월 27일(수)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8월 29일(금) 제33차 이사회 / 교정사목 센터



####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5/06/16~07/15)

2025년 6월~7월에는 김어진 세례자요한, 김현근, 김현철 발렌티노, 진태욱, 홍수연 마틸다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윤영희 루시아, 장순이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입금자를 찾습니다. (농협) 6월 26일 '0' / 6월 29 '주일미사 현금'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 ※ 후원 정보 변경 시 바로 연락주세요.

-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
- 후원금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되었을 때

#### ※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잔액부족으로 인한 미출금이 많이 발생하오니,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 후원사업부 02)921-5094 / 교정사목 휴대전화 010-3732-5093 ♥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